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재상* **

양 천 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 법학박사

< 목 차 >

- I. 서 론
- II. 인재상의 몇 가지 유형
- III.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이 규정하는 인재상: 이상적 측면
- IV.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재상: 현실적 측면
- V. 글을 맺으며

I. 서 론

최근 영화 “명량” 이 기록적인 인기를 끌면서 총무공 이순신 장군에 대한 관심이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이순신의 저서 『난중일기』나 이순신을 다룬 각종 저작들, 심지어 이순신을 다룬 동영상 강의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⁵⁶⁾ 이와 더불어 이순신의 리더십을 배우고자 하는 관심도 늘어나고 있다.⁵⁷⁾ 이러한 상황을 보면, 훌륭한 인물이 한 사회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그 사회의 시대적 운명

* 투고일 : 2014. 12. 04 심사완료일 : 2014. 12. 24 게재확정일 : 2014.12. 26.

** 이 글은 필자가 지난 2014년 9월 18일 목요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최된 “차한성 석좌교수 취임기념 학술대회” 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그 날 필자의 발표
56) 예를 들면, 이순신, 노승석 (옮김), 『중보 교감완역 난중일기』 (여해, 2014); 김훈, 『칼의 노래』 (문학동네, 2012); 전철홍·김한민·김호경, 『명량』 (21세기북스, 2014) 등이 인기를 얻고 있다. 동영상 강의로는 스타 역사강사인 설민석 강사의 짙막한 동영상 강의가 인기를 끌고 있다.

57) 가령 노승석, 『이순신의 리더십: 고금에 통하는 해안으로 세상을 읽다』 (여해고전연구소, 2014) 참고.

을 바꿀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고, 자연스럽게 어떻게 이러한 인물을 키워낼 수 있을까 관심도 갖게 된다.

필자가 서두에서 영화 “명량” 과 충무공 이순신을 언급한 것은, 필자가 하고자 하는 발표가 이러한 주제와 무관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려는 발표는 우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길러내야 하는 인재는 어떤 인재여야 하는가의 문제와 관련을 맺는다. 그러면 우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어떤 인재를 육성해야 하는가? 충무공 이순신과 같은 인물? 물론 충무공 이순신과 같은 인물을 키워낼 수 있다면, 그야말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큰 영광이 아닐 수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이러한 인물을 목표로 하는 것은 너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적인 高談峻論을 펼치고자 한다면, 여러 화려한 인재상을 멋있는 이야기로 풀어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이상적인 이야기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처해 있는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함으로써 이에 걸맞은 인재상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 발표에서는 필자의 전공인 기초법학의 관점을 다소 원용하려 한다. 다만 이 글은 엄격한 학문적 논의라기보다는 이보다 좀 더 자유로운 에세이에 가까운 글이라는 점을 먼저 밝혀두도록 한다.

II. 인재상의 몇 가지 유형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재상을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우리 사회에서 흔히 언급되는 인재상의 몇 가지 유형에 관해 짚어보도록 한다.

1. 삼성과 현대의 인재상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는 흔히 삼성과 현대를 거론한다. 물론 정주영 명예회장이 사망한 이후 현대그룹은 현대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 그리고 현대중공업으로 분할되었지만, 여전히 일반인들의 뇌리 속에서는 삼성과 현대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각인되고 있다.⁵⁸⁾ 이를 반영하듯, 삼성그룹이 지향하는 인재상과 현대그룹이 지향하는 인재상 역시 대중에 회자되고는 하였다. 흔히 삼성이 지향하는 인재상은 매사에 철저하고 꼼꼼한 완벽주의자로 언급된다. 이에 대해 현대는 철저함은 덜하지

58) 삼성그룹 역시 이병철 회장이 사망한 이후 삼성그룹과 CJ그룹 그리고 신세계 그룹 등으로 그룹이 분할되었다.

만 저돌적이고 진취적인 이른바 돌쇠형 인재상을 추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통념은 삼성그룹과 현대그룹을 각각 창업한 故 이병철, 정주영 회장의 이미지와 관련이 있다. ‘이기는 정주영’, ‘지지 않는 이병철’ 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두 창업자의 이미지는 달랐다.⁵⁹⁾ 잘 알려진 것처럼, 정주영 회장은 불도저처럼 저돌적이고 진취적으로 일을 추진하였다. 남들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내고는 하였다. 진취성과 모험심 그리고 강력한 추진력은 오늘날의 현대그룹을 가능하게 한 정주영 회장의 원동력이었다. 이에 반해 이병철 회장은 모든 영역에서 최고를 추구하면서 오직 최고가 될 수 있는 것만을 추구하였다. 남들이 가능하다고 보는 경우에도 철저하게 검토하여 절대 실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인재를 중시한 이병철 회장이 스스로 관상을 공부하고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도 직접 챙겼다는 일화는 모든 면에서 최고와 완벽을 추구하는 이병철 회장의 면모를 잘 보여준다.

모험을 추구하는가, 아니면 완벽을 추구하는가? 정주영 회장이 창업한 현대그룹과 이병철 회장이 창업한 삼성그룹은 서로 다른 인재상을 추구한다. 전자가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데 적합하다면, 후자는 기존의 것을 발전시키거나 지키는 데 적합하다. 이 중에서 법률가에 적합한 인재상은 아마도 후자일 것이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법률가상은, 입법자와는 달리, 이미 존재하는 실정법체계에 적합하게 법적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가여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법부의 이미지와도 상통한다. 모험보다는 안정이 사법부가 추구하는 가치이자 이미지가기 때문이다. 그러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삼성그룹이 지향하는 인재상을 추구해야 하는 것일까?

2. SKY형 인재

필자가 대학에 입학하던 즈음에는 흔히 SKY형 인재가 대학생들 사이에 회자되기도 하였다.⁶⁰⁾ 여기서 SKY형 인재란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의 인재를 말한다. 물론 이는 엄밀한 학문적 논의를 거쳐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일반적인 인상 또는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서울대형 인재는 모범생의 이미지를 띤다. 주어진 틀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흡수하거나 새로운 틀을 지적·창조적으로 만들어내는 인재의 모습을 보여준다. 서울대형 인재는 학자나 관료 혹은 판사와 같은 엘리트 법률가에 적합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고려대형 인재는 지방색이 강하고 민족이라는 공동체를 지향하며 저돌적이라는 이미지를 띤다. 고려대 자체가 ‘민족고대’라고 많이 불렸다는 점,⁶¹⁾ ‘막걸리 찬가’라는 노래가 있을 정도로 오랫동안 막걸리가 고려대의 대표

59) 박상아, 『이기는 정주영 지지 않는 이병철』(무한, 2009).

60) 필자는 1990년에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하였다.

적인 술이었다는 점,⁶²⁾ 선후배 간에 강력한 상명하복이 지배하는 집단주의적 문화가 강했다는 점, 상당수의 재학생들이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이었다는 점 등이 이를 뒷받침한다.⁶³⁾ ‘현대건설 신화’를 일구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모래시계 검사’로 알려진 홍준표 경남도지사 등이 고려대형 인재의 이미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준다.⁶⁴⁾ 마지막으로 연세대형 인재는 자유와 낭만 그리고 세련됨을 표상한다. 막걸리가 고려대의 술이었다면, 맥주는 오랫동안 연세대를 상징하는 술이었다. 고려대 인근에는 막걸리집이 즐비했지만, 연세대가 자리한 신촌은 세련된 술집과 레스토랑 등이 가득한 곳으로서 젊은이 문화의 대표적 공간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연세대형 인재는 판료보다는 사업가가 더욱 적합해 보였다.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대변하듯, 연세대 상경대학은 오랜 동안 연세대를 대표하는 단과대학이었다.

이러한 인재상에 비추어볼 때, 법률가에 가장 적합한 상은 아마도 서울대형 인재일 것이다. 이를 예증하듯, 현재 법률가, 그 중에서도 판사 가운데는 서울대 출신의 법률가가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다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도 이렇게 머리 좋고 모범생인 서울대형 인재를 좇아야 하는가?

3. X형 인재와 Y형 인재

마지막으로 X형 인재와 Y형 인재에 관해 살펴본다. Y형 인재는 우리 대학교 이효수 전 총장이 ‘글로벌 이니셔티브’ (Glocal Initiative)와 함께 강조하던 대학경영의 핵심 비전이었다. 총장에 재임하던 4년의 기간 동안 이효수 전 총장은 우리 대학은 Y형 인재를 길러내야 한다고 반복적으로 역설하였다. 그러면 Y형 인재란 어떤 인재를 말하는가? 사실 필자는 지난 4년 이상을 Y형 인재에 관해 들어왔지만, Y형 인재가 지칭하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그것의 독창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는 반드시 명확하지는 않다. 여기에서는 이효수 전 총장의 설명을 빌어 Y형 인재에 관해 간략하게 살

61) 사실 민족고대라는 이미지는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교수로 재직했던 고 조지훈 선생이 지은 명시 “호상비문” 과도 관련이 깊다. “민족의 힘으로/민족의 꿈을 가꾸어 온/민족의 보람찬 대학이 있어”로 시작하는 호상비문은 오랫동안 고려대학교 학생들의 교훈 역할을 해왔다.

62) ‘막걸리 찬가’는 고려대학교의 옛 응원가를 개작한 노래로서 고려대학교 재학생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하는 노래에 속하였다.

63) 필자의 동기 중에도 지방학생, 그 중에서도 대구경북 지역출신의 학생들이 많았다.

64) 그러나 이러한 고려대의 이미지는 지난 2000년을 전후로 하여 많이 바뀌게 된다.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서울 강남출신의 학생들과 외고출신의 학생들이 대거 고려대에 입학하게 되면서, 민족고대라는 이미지는 더 이상 존속하지 않게 되었다. 오히려 ‘강남고대’라는 이미지가 요즘 고려대에 더욱 적합해 보일 정도다.

펴보도록 한다.⁶⁵⁾

Y형 인재는 X형 인재와 짝을 이루는 개념으로서 미국의 경영학자 맥그리거(Douglas McGregor)의 X·Y 이론에 기반을 둔 것이다.⁶⁶⁾ 맥그리거는 인간을 'X형 인간' 과 'Y형 인간' 으로 구분한다. X형 인간은 일을 싫어하는 수동적이고 폐쇄적이며 관행적인 인간을 말한다. X형 인간은 창의적이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생산하기 보다는 기존의 것을 반복하는 데 적합하다. 더군다나 X형 인재는 능동적·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에, 조직의 리더는 전통적인 명령 및 통제방식의 리더십으로 X형 인재를 관리해야 한다. 이에 대해 Y형 인재는 X형 인재에 반대되는 인재형으로서, 일을 좋아하고 능동적이며 개방적이고 창의적인 인재를 말한다. Y형 인재는 창의성이 강해 새로운 것을 생산하는 데 적합하다. 또한 Y형 인재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인재이므로, 조직의 리더는 통제가 아닌 소통 중심의 민주적 리더십으로 Y형 인재를 이끌어야 한다. 필자는 인간의 유형을 이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것을 과연 '이론' 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Y형 인재가 오늘날의 상황에서 시사하는 바는 분명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오늘날과 같이 새로운 데이터, 정보, 지식이 넘쳐나는 정보화사회, 사회 각 영역들 간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새로운 컨버전스(convergence)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현대 융합사회에서는 개방성과 창의성을 핵심으로 하는 Y형 인재가 더욱 적합하다는 점이다.

필자는 이러한 Y형 인재가 오늘날의 법률가상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에는 경험하기 힘들었던 새로운 법적 분쟁이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분쟁 가운데는 어느 한 전공의 관점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법적 분쟁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판례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창의적 관점 그리고 전공 사이의 경계를 넘어서는 전공융합적 관점을 갖출 필요가 있다. 특히 '김앤장' 이나 '태평양' 같은 거대 로펌에서는 이러한 인재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법률가의 상을 새롭게 정립해야 할지도 모른다.

65) 이에 관해서는 이효수, 『Y형 인재에 투자하라: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경제의 길』 (매일경제신문사, 2012) 참고.

66) 맥그리거 교수에 관한 간략한 소개는 http://en.wikipedia.org/wiki/Douglas_McGregor 참고 (방문일자: 2014. 9. 6. 13시 34분).

Ⅲ.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이 규정하는 인재상: 이상적 측면

1. 출발점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몇 가지 인재상에 관해 검토해 보았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하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해야 하는 인재상을 모색해 보도록 한다. 먼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이 규정하는 인재상을 분석해 보도록 한다.

2.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이 규정하는 인재상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학칙”(이하 “학칙”으로 약칭함) 제2조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해야 하는 교육이념을 정하면서, 제3조에서 “교육목표”라는 표제 아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지향해야 하는 인재상을 규정한다.⁶⁷⁾ 이에 따르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해야 하는 인재상은 크게 다섯 가지 모습을 띤다. 첫째는 “성숙한 인격과 높은 도덕성을 갖춘 법률전문가”이고, 둘째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법률전문가”이며, 셋째는 “전문적이고 실무역량을 갖춘 법률전문가이고”, 넷째는 “공익·인권에 기여하는 법률전문가”이며, 다섯 번째는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법률전문가”이다. 이 중에서 첫 번째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인재상의 인성적 측면을, 두 번째는 글로벌적 측면을,⁶⁸⁾ 세 번째는 법률전문가에게 꼭 필요한 지성적 측면을, 네 번째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측면을,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역적 측면을 반영한다.

3. 비판적 분석

그러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이 규정하는 인재상은 현실적인 인재상으로서 공감을 얻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다.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다. 우선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이 규정하는 인재상이 구체

67)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의 기본골격은 지난 2007년 법학전문대학원 인가신청이 한창일 때 당시 총괄지원부 실무위원장을 맡고 있던 필자가 마련하였다. “교육이념”과 “교육목표” 역시 대부분 필자가 초안을 제시하였다.

68) 이 두 번째 측면은 원래 필자가 기본골격을 만들 때 고려하지 않았던 부분이었는데, 당시 총장이던 우동기 현 대구시 교육감이 제안하여 수용한 것이다.

적으로 무엇인지에 관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성원들이 잘 공유하지 못하고 있다. 나아가 학칙이 규정하는 인재상은 상당히 개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개성적이고 뚜렷한 모습을 그려내지는 못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학칙이 규정하는 인재상은 ‘이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테면 학칙 제3조 제2호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글로벌 리더로서 법률전문가”를 규정하는데, 이를 현실적으로 실현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외국어능력, 그 중에서도 영어구사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역량을 고려하면, 이는 꽤 ‘이상적인 인재상’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다. 요컨대, 우리 학칙이 규정하는 인재상은 일반적이면서 개성이 약한 이상적인 인재상이고, 바로 그 때문에 현실적인 인재상으로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IV.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재상: 현실적 측면

그러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지향해야 하는 현실적 인재상은 무엇인가? 아래에서 이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고려사항

(1) 인재상의 세 가지 요소로서 지성·감성·인성

인재상을 모색할 때는 고려해야 할 세 가지 요소가 있다. 지성과 감성 그리고 인성이 그것이다. 우리 인간의 인격성은 이러한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그리스어 로고스(logos), 파토스(pathos), 에토스(ethos)에 대응하는 그리고 칸트(I. Kant)의 순수이성, 판단력, 실천이성에 대응하는 이 요소는 우리 인간의 지적인 측면, 감정적인 측면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을 반영한다. 가장 이상적인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밋밋하고 개성이 없는 인격이 되고 많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개성적인 인재상을 지향하고자 한다면, 이 세 가지 요소 가운데 어느 한 쪽을 더욱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가령 서울대학교의 경우에는 “veritas lux mea”라는 교훈이 시사하는 것처럼 지성을 강조한다. 이와 달리 고려대학교의 경우에는 “지야의 함성”이라는 응원가가 보여주는 것처럼, 지성뿐만 아니라 야성 역시 강조한다.⁶⁹⁾ 이처럼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역시 이러한 세

가지 요소 중에서 어느 한 쪽에 더욱 비중을 둘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2)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현황 분석

이를 밝히기 위해서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현황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현실적인 인재상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유수의 법학전문대학원과 비교할 때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첫째는 나이가 상대적으로 많고, 둘째는 남학생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셋째는 사법시험 경력이 있는 법학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넷째는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이나 학점 그리고 그 중에서도 영어성적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을 냉정하게 고려할 때, 지성·감성·인성 중에서 지성적인 면에 주안점을 두는 것은 설득력이 약한 판단이라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재학생들의 지성적인 면을 강화한다고 해서, 이들이 이를테면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들을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여기저기서 듣게 되는 이른바 SKY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뛰어난 점을 감안하면,⁷⁰⁾ 우리가 지성적인 면을 내세워 이들과 승부하는 것은 현실성이 약해 보인다.⁷¹⁾ 일단 국내 굴지의 로펌들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을 포함한 지방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들에게 특별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이를 예증한다. 이러한 근거에서 필자는 감성과 인성 중에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강점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중에서 필자는 인성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재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감성 역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의 강점이 되기는 어려워 보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우리 재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나이가 많고, 또 오랫동안 법학공부에만 매달려와 감성적인 측면에서 세련됨이나 자유스러움, 낭만과 같은 이미지와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다고 보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필자는

69) '지성과 야성'은 김상협 전 고려대학교 총장이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70) 예를 들어, 필자는 이들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영어능력이 탁월하고, 대부분 비법학사인데도 법학공부를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법학사 출신들을 쉽게 뛰어넘는다는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듣고는 하였다.

71)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데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높이는 것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재상과는 다소 무관한 것으로서, 오히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평판과 관련을 맺는 것이기 때문이다.

인성적인 측면에 주안점을 두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재상을 모색해야 한다고 본다.

(3) 특성화 목표로서 공익과 인권

이러한 전략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특성화 목표로 설정한 공익과 인권과도 합치한다. 잘 알려져 있는 것처럼, 공익과 인권은 법적 개념 중에서도 도덕적인 성격이 강한 개념이다. 전체 공동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공익과 도덕적 권리에서 출발하는 인권을 우리 현실 속에서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공익과 인권에 대한 지식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에 더하여 공익과 인권을 향한 도덕적 의지가 있어야 한다. 요즘 인권교육에서 강조되는 ‘인권감수성’이 이를 잘 시사한다. 만약 공익과 인권에 대한 도덕적·윤리적 의지가 존재하지 않으면, 공익과 인권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법률전문가가 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재상을 모색할 때는 인성에 강조점을 두어야 한다.

(4)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이 규정하는 인재상 고려

이렇게 인성에 주안점을 두어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재상을 모색하려는 것은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이 규정하는 인재상과도 합치하는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법학전문대학원학칙 제3조가 규정하는 인재상을 보면, “성숙한 인격과 높은 도덕성”, “국민에게 봉사”, “공익·인권 실현에 기여”, “지역발전에 기여” 등과 같은 인성적 측면을 다수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이상적인 규정이기기는 하지만, 학칙이 추구하는 인재상을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성이나 감성보다는 인성에 더욱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2.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재상

(1)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에 적합한 인재

지금까지 전개한 논의에 바탕을 두어 필자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해야 하는 인재상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에 적합한 인재’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liberal communitarianism)란 미

국 하버드대학의 정치철학자인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이 제안한 정치철학적 태도이다.⁷²⁾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는 미국 정치철학에서 전개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장점만을 취하고자 하는 태도이다. 필자는 현대사회가 처한 도덕적·윤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이러한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가 현대사회의 도덕적·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적절한 철학적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에 적합한 인재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가?

(2) 공동체주의를 추구하는 인재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에 적합한 인재는 먼저 공동체주의를 추구하는 인재여야 한다. 그러면 공동체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그것은 단순히 집단의 이익 혹은 조직논리를 우선시킨다는 것을 말하는가? 그렇지 않다. 필자는 공동체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단순히 집단의 이익을 우선한다거나 조직논리를 우선한다는 것을 뜻하지 않는다고 본다. 만약 이것만을 강조하면, 이는 천박한 집단주의에 불과할 뿐이다. 공동체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크게 다음 세 가지 의미를 갖는다.

1) 공동체의 미덕과 공익 추구

첫째, 공동체의 미덕과 공익을 추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와는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공동체의 ‘미덕’(virtue)과 ‘공익’(public interest)이 독자적인 가치로서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공동체의 미덕과 공익을 추구한다는 것은, 이러한 미덕과 공익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이를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러한 미덕과 공익이 언제나 개인의 이익이나 권리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공동체적 연대의식 추구

둘째, 공동체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추구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너와 내가 전혀 별개의 존재, 철학적으로 말하면 서로 독립된 ‘무연고적 자아’(unencumbered self)가 아니라는 점을 시사한다. 존재론적으로 볼 때, 나와 너는

72) 이에 관해서는 양천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가능성: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법철학연구』 제17권 제2호(2014. 8), 205-242쪽.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는 ‘연고적 존재’ (encumbered self)이자 ‘상호주관적 존재’ (intersubjective self)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에 대해 연대의식을 갖고 연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추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나의 성공을 전적으로 나만의 것으로 이해하지 말고 이웃과 함께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내 이웃의 어려움은 동시에 나의 어려움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하는 인재는 이러한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고취할 수 있어야 한다.

3) 강한 소속감

셋째, 공동체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자신이 소속한 조직 또는 공동체에 대해 강한 소속감을 갖는다는 것을 뜻한다. 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소속한 공동체에 대한 충성(loyalty)으로 이어진다. 자신이 소속하는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중요한 미덕이다. 이는 필자가 소속되어 근무하는 영남대학교의 전통과도 합치한다. 왜냐하면 우리 영남대학교 역시 고려대학교처럼 민족을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이는 이은상 선생이 작사하고 김동진 선생이 작곡한 영남대학교 교가에서 잘 드러난다. 웅혼하면서 생동감이 가득한 이 아름다운 노래에는 조국과 민족을 강조하는 영남대학교의 기풍이 잘 담겨 있다.⁷³⁾ 우리는 오랜 군사독재의 영향으로 공동체에 대한 충성을 부정적인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강하다. 만약 이러한 충성이 ‘Top Down’ 방식의 맹목적이고 무비판적인 것이라면, 이는 분명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공동체와 조직에 대한 충성심이 ‘Bottom Up’ 방식의 자발적이고 건전한 비판을 허용하는 것이라면, 이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할 미덕이다. 전략적으로 볼 때, 강한 소속감은 우리 재학생들의 취업을 위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왜냐하면 로펌과 같은 대부분의 조직은 뛰어난기만 한 변호사보다는 실력은 약간 모자라도 조직에 대한 소속감과 열정이 강한 변호사를 선호할 것이기 때문이다.⁷⁴⁾

(3)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인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하는 인재는 동시에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인재

73) 필자는 개인적으로 우리 영남대학교 교가를 좋아하여 종종 즐겨 부르고는 한다. 필자의 모교인 고려대학교 교가와는 다른 음악적 아름다움과 기풍을 담고 있다.

74) 이는 필자가 지난 4월에 법학부 취업제고의 일환으로 여러 기업을 방문하여 인사담당자와 나눈 이야기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여야 한다. 공동체주의만을 추구하게 되면, 자칫 개인의 소중한 이익이나 핵심가치 또는 인권과 같은 핵심적 권리를 소홀히 할 수 있다. 또한 집단이나 조직의 논리를 내세워 소수자를 희생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폐단을 막기 위해 공동체주의와 더불어 자유주의를 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 때 자유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다음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1) 인권 추구

첫째, 자유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인권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인권 자체가 자유주의가 낳은 산물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인권을 추구하는 것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특성화 목표와도 합치한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하는 인제는 인권, 특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된 소수자의 인권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인제가 되어야 한다.⁷⁵⁾

2) 참여하고 토론하는 인재

둘째, 자유주의를 추구한다는 것은 참여하고 토론하는 인재를 지향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자가 지향하는 자유주의는 ‘소극적 자유주의’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주의’를 의미한다. 이렇게 참여하고 토론하는 인재를 지향한다는 것은, 독일의 법철학자이자 필자의 학문적 스승인 클라우스 귄터(Klaus Günther)가 제시한 ‘참여적 인격’ (deliberative Person)을 추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참여하고 토론하는 인재는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공동체의 미덕과 공익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밝혀가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 공동체의 미덕과 공익을 단순히 주어진 것으로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존재여서는 안 된다. 공적 토론과정에서 우리가 소속된 공동체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모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추구하는 공동체주의가 ‘나쁜 의미의 집단주의’로 전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들이 자기 자신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공동체의 주인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여기서 강조하는 토론은 논쟁보다는 설득과 협상에 더욱 가까워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논쟁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논쟁은 많

75)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권을 소수자의 권리만으로 이해하는 것은 인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이에 관해서는 양천수, “인권교육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과제: 인권교육법 제정과 관련하여”, 『아주법학』 제7권 제2호(2013. 9), 9-44쪽.

은 경우 합의보다는 분열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서로가 공감하면서 생산적인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는 설득과 협상에 더욱 가깝게 토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하려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승인할 수 있는 자세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3. 실현방법

그러면 이러한 인재상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가? 단순히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재상을 표방한다고 해서 인재상이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이를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모색되고 이러한 방법이 실행되어야 한다. 필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실행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각종 스터디그룹 및 동아리 활성화

첫째, 각종 스터디그룹과 동아리를 활성화함으로써 공동체주의를 추구하는 인재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스터디그룹에 참여하고 동아리활동을 함으로써, 다른 이와 함께 하는 법을 배우고 연대의식도 고취하면서 협업(cooperation)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2) 운동 및 체육대회 참여

둘째, 각종 운동 및 체육대회에 참여함으로써 소속감과 연대의식을 고취할 수 있다. 학생들에게 운동을 장려하는 것은 법학공부에 필요한 체력을 키우고 또 두뇌활동을 활성화시킨다는 점에서도 필요하다. 다만 여러 여건상 시간이 매우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⁷⁶⁾

(3) 질문과 토론을 장려하는 수업

셋째, 일방적인 강의방식이 아닌 질문과 토론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함으로써 참여하고 토론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 수업시간에 질문을 던지고 토론에

76) 고려대학교나 연세대학교의 경우에는 이른바 '고연전' (또는 연고전)을 위한 각종 응원전에 참여함으로써 학교에 대한 소속감 및 강한 연대의식을 고취하게 된다. 우리 영남대학교에 이러한 문화가 없다는 것을 참 아쉽게 생각한다.

참여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 학생들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방식이다. 물론 필자가 맡고 있는 수업은 대부분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되지만, 아쉽게도 소수만이 필자의 수업에 참여하고 있을 뿐이다. 강의자에 따라서는 진도와 효율성을 이유로 하여 필자의 제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강의자들은 최소한 학생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던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설사 학생들의 질문이 '수준 이하'로 보일지라도 이를 감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강의자의 독백으로 수업이 채워지는 일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다. 또 그렇게 해야만 비로소 적극적 자유주의를 지향하는 인재를 육성할 수 있다.

V. 글을 맺으며

지금까지 필자가 생각하는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재상을 두서없이 제시해 보았다. 이는 필자가 지금까지 공부해 온 법철학적 사유에 기반을 두어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제시해 본 것이기에, 아직 거칠고 또 많은 논의와 검증은 필요로 하는 것이다.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해야 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인재상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필자의 이 미약한 발표가 앞으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재상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는 데 필요한 단초가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필자는 소임을 다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 역시 앞으로도 이 문제에 관해 계속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참 고 문 헌

- 김훈, 『칼의 노래』 (문학동네, 2012).
- 노승석, 『이순신의 리더십: 고금에 통하는 혜안으로 세상을 읽다』 (여해고전연구소, 2014).
- 박상아, 『이기는 정주영 지지 않는 이병철』 (무한, 2009).
- 양천수, “인권교육의 의미와 성과 그리고 과제: 인권교육법 제정과 관련하여”, 『아주 법학』 제7권 제2호(2013. 9).
- 양천수,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의 가능성: 마이클 샌델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하여”, 『법철학연구』 제17권 제2호(2014. 8).
- 이순신, 노승석 (옮김), 『증보 교감완역 난중일기』 (여해, 2014).
- 이효수, 『Y형 인재에 투자하라: 시대를 선도하는 지식경제의 길』 (매일경제신문사, 2012).
- 전철홍 · 김한민 · 김호경, 『명량』 (21세기북스, 2014).

[국문초록]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재상

양 천 수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법학박사

이 글은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추구해야 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다룬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인재상 몇 가지를 검토한다(II). 여기에서는 현대와 삼성의 인재상, 이른바 SKY 인재상 그리고 X형 인재와 Y형 인재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이어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칙이 규정하는 인재상은 무엇인지를 분석한다(III). 이를 토대로 하여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이 현실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인재상이 무엇인지를 모색한다(IV). 여기에서 필자는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에 적합한 인재상'을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재상으로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인재상을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본다.

주제어 :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인재상, 삼성, 현대, 맥그리거, 자유주의적 공동체주의

[Abstract]

A Image of the Right Student of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Yang Chun-Soo

Professor at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This article deals with the image of the right student of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First of all, this article is looking for some of images of right people that prevail in our society (II). The author of this article is handling here especially the images of right people of Hyundai and Samsung, namely the images of right student of 'SKY', and the X and Y-type people of the american psychologist MacGregor. Then, this article is analyzing the images of right student in the regulation of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III). Based upon this, the author is trying to find out a image of the right student whom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has to seek (IV). The author is here proposing the image of the student of 'liberal communitarianism' as a image of the right student of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Finally, this article is seeking the ways of achieving the image of the student of 'liberal communitarianism'.

Key words : image of the right student of Yeungnam University Law School,
Samsung, Hyundai, MacGregor, liberal communitarianism